

인천에 간 광주U대회

조직위 직원 37명 실전 경험 경기장·상황실·성화봉송 등 표게임 현장 15개 분야 참여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 직원들이 인천 아시안게임 현장에 직접 참여해 국제 스포츠대회 운영 경험을 쌓고 있다.

인천 아시안게임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지만 광주U대회 직원들은 지금부터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들어간 셈이다.

2015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는 인천아시안게임 현장 15개 분야에 조직위 직원 37명을 배치해 메가스포츠대회 실전 경험을 익히고 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배치된 조직위 직원들은 짧게는 14일부터 길게는 40일간 인천아시안게임을 운영하는 대회지원 요원으로 종사하고 있다.

이번 인천아시안게임 파견은 지난 5년간 대회 준비를 위해 작성해 온 현장 운영계획을 실전에 적용해 검증하고, 수정·보완하기 위해 실시됐다. 인천아시안게임은 36개 종목에 걸쳐 49개 경기장 및 49개 훈련장에서 펼쳐지는 대규모 국제스포츠대회로, 광주U대회를 실전처럼 점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광주U대회 조직위는 기록계측·기록채점 종목경기, 단체·개인 경기가 진행되는 여러 경기장 뿐만 아니라 종합상황실, 선수촌, 미디어촌, 경기안내센터, 공항, 성화봉송 현장 등에 지원요원을 배치해 대회 운영 전반을 직접 체험하고 있다.

인천아시안게임 선수촌 경기안내센터에서 선수단 관리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조직위 경기운영부 최진이 담당관은 "실제로 대회운영에 직접 참여해 보니 다양한 현장 상황을 경험하고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며 "참가 선수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광주U대회를



2015광주U대회 조직위 직원이 인천아시안게임 선수촌 경기안내센터의 지원요원으로 배치돼 선수단 대표에게 선수, 경기정보, 선수단회의 일정 등을 안내하고 있다.

꼼꼼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인천아시안게임 실전경험은 광주U대회 현장 운영계획에 반영해 보다 완벽한 대회운영을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조직위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대회 준비상황을 실전에 적용한 모의대회(5

개 종목)를 열어 현장운영계획에 반영해 미비점을 보완해 왔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기록계측 종목을 중심으로 한 모의대회를 개최해 현장 실전능력을 높일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김치축제, 시민난장으로 버무린다

4~8일 중외공원 일일 나눔행사로 20주년 자축 자치구 마당·전시·콘서트 글로벌 김치 CEO 초청 행사 탤런트 이일화씨 등 팬 사인회

제 20회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가 오는 4일 막을 올린다.

오는 8일까지 5일간 광주 중외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올해 행사는 김장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해 '유네스코가 품은 Kimchi, 광주김치 세계로 미래로!'라는 주제로 전시, 공연, 공연, 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

그램들이 펼쳐진다.

4일 오후 2시 개막행사에는 시민, 외국인, 주한 외교단, 시민사회단체 등이 대거 참석한다. 지난 7월 광주시와 서울시가 체결한 상생발전교류협약 이행과 김치·김장문화 확산과 세계화를 위한 공동 노력의 하나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참석해 개막을 축하하고 양 도시의 상생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개막행사에 이어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할 김치를 담그는 '김치사랑 나눔행사'가 개막 행사장 옆 광장에서 진행된다. 참가 시민들과 김치, 주먹밥을 나누며 20주년을 자축하는 시민김치문화난장을 펼치게 된다.

개막행사에 앞서 오후 1시20분부터 홍보대사로 위촉된 탤런트 이일화, 한복디

자이너 이효재, 김치버스터의 류시형, 김승민씨가 행사장을 찾아 팬 사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김장문화 등재 1주년을 기념해 '스페셜 프로그램'으로 5개국 6개 업체와 수출계약을 맺는 '글로벌 김치 CEO 초청 행사'는 2박3일 간 진행된다.

축제 기간에는 공중음식연구원 한복려(공중김치아카데미), 소리광대 임진택(개막식 판소리)씨 등이 축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독일 ZDF공영방송, 중국 신화사 통신, 대만 TV 등의 취재 팀이 행사장을 찾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축제 기간 5개 자치구의 시민난마당에 첫날 난구를 시작으로 광산구, 서구, 북구, 남구 순으로 매일 열린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공동체 주택 건설 프로젝트' 본격화

TF팀 첫 회의 시작...올해 사업추진 방향 설정

광주시의 민선 6기 핵심 공약과제인 '공동체 주택 건설 프로젝트'가 지난 30일 사업실행 TF팀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TF팀은 인문학 기반, 물적기반, 인적기반, 복지경제, 사회적 경제, 행정지원 등 6개 분야에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가와 활동가 각 1명씩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

성됐다.

이들은 공동체 주택 추진방향과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추진 과정별 실행역할을 점검하고, 이행 방법 등을 폭넓게 논의하게 된다.

시는 사업실행 TF팀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사업 접근 전략, 정책 수단 마련 등 사업 추진방향을 정하고, 내년 초 사업 대상

지를 선정해 상반기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범사업 마스터 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가 추진하는 공동체 주택은 도시화와 가구 분화, 전면 재개발 등에 따른 공동체 파괴 현상과 사회적 약자, 저소득계층의 취약한 주거 실태를 감안, 노인·차상위 계층 등을 위한 공공주택의 주거복지대책으로 기본적인 주거복지가 보장되고 공동체 회복이 가능한 자치형 마을주택이다.

시는 이달초 민선6기 내 자치구별 1곳씩 총 5곳에 공동체 주택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져 사회적 경제와 공동체 회복을 동시에 달성하는 공동체 주택을 건립하기로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행락철 취약시설 안전점검 시, 13일까지 2주간

광주시는 가을 행락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시설 정비·점검을 강화한다.

시는 13일까지 2주간을 '10월 안전강조 주간'으로 정하고 집중호우, 강풍 등 가을 풍수해와 농기계 안전사고, 산악사고, 교통사고, 산발 예방 등에 나선다.

시는 또 범시민 안전문화운동으로 오는 6일 무등산 중심사 주차장 입구에서 제223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펼친다.

시는 특히 산발방지를 위한 등산안전목지킴이 운영, 가을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 유원시설, 유도선, 캠핑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 행락철 교통사고 예방대책 등을 관계 기관단체가 함께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박진표기자 lucky@

광주 수돗물 수질기준 모두 적합

시상수도사업본부, 정수장 4곳 등 검사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30일 "정수장 4곳과 급수과정별 시설 25곳, 수도관 노후지역 수도꼭지 8곳, 일반 수도꼭지 130곳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용원, 지원, 덕남, 각화 등 모든 정수장에서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17개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그 외 항목은 먹는 물 수질기준보다 낮게 검출되는 등 먹는 물 수질기준 59개 검사항목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또한 배수지, 급·배수관, 수도꼭지 등 수돗물 급수과정별 시설에서도 11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수질기준에 적합했다.

정수장별 수도관 노후지역에 대한 10개 항목 검사에서는 급수관 영향물질인 아연, 구리 등이 기준치보다 낮게 검출되는 등 모든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 결과는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ater.gcity.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비엔날레공원에서 누리는 분양같은 임대아파트

용봉동 도나우타운

- 입주전 베이커아웃 실시
- 주방·욕실 천장에 매립형 공향시스템 설치
- 욕실 내부 환풍기 타이머스위치 설치
- 건식욕실 (인장)
- 애완동물 화장실 전용 출입문 설치
- 반2개 및 주방 확장형
- 안방블락이장 설치

문의062 **264-7789**

시행 | 주 | 심산건설 시공 | 주 | 구산건설

전용면적 59㎡

228세대

전 세대 남향배치

김장훈 팬사인회

10월 17일 OPEN